지상파 3사 '올림픽 중계방송' 어땠나

인기 종목 겹치기 중계…시청자 볼 권리 외면

야구·축구에만 집중된 편성에 불만
日 이긴 여자배구 케이블채널 중계
성차별 단어·반말 해설 등도 부적절





2020 도쿄올림픽이 반환점을 돌면서 중계 경쟁에 나선 지상파 방송3사가 지나친 '겹치기 방송'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7월31일 오후 MBC(아래사진)를 비롯해 KBS 2TV·SBS가 모두 야구와 축구 경기를 중계했고, KBS 1TV에서 뒤늦게 여자배구 대표팀 조별리그 4차전(위쪽 사진)을 내보냈다. 사진출처 | KBS·MBC

2020 도쿄올림픽이 후반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지상파 방송 3사의 중계방송 방식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주요 인기 종목이나 메달 확보가 유력한 경기에만 집중하면서 이번에도 채널별 다양한 편성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일부 중계진의 과도한 감정 이입과 성 편견의 시선 등도 시청자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 "시청자 볼 권리도 배려하라"

7월31일 오후 7시 야구 대표팀이 미국과 조별리그 2차전이, 오후 7시40분 8강전 진출을 앞둔 여자배구 대표팀이 '숙적' 일본과 조별리그 4차전을 치렀다. 이어 8시 8강전에 진출한 축구 남자 대표팀이 멕시코와 맞붙었다. 세 경기 모두 시청자 관심을 끈 '빅 매치'였다.

하지만 KBS·MBC·SBS는 모두 야구와 축구 경기에 카메라를 비췄다. KBS 1TV는 야구 경기를, KBS 2TV·MBC·SBS는 축구 경기를 각각 중계했다. 여자배구 경기는 온라인과 일부 케이블 스포츠채널에서만 볼 수 있었다. 그나마 KBS 1TV가 야구 중계방송 도중 여자배구 경기로 전환하기도 했지만 온전한 중계는 아니었다.

이에 시청자들은 각 방송사나 채널별로 각기 다른 경기를 중계방송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SNS에서는 "여자배구는 찬밥이냐"는 등 주장이 이어졌다. 야구와 축구 대표팀이 각각 '강적'들에게 나란히 패하고, 여자배구 대표팀이 5세트 접전 끝에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면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평소 야구나 축구를 좋아한다는 시청자들은 "한일전 배구에 채널을 고정했다" "방송 3사가 (각 경기를)나눠서 중계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의 이 같은 중계방송 방식은 사실 이번 올림픽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방송사로서는 적지 않은 중계권료를 지불한 만큼 시청률 확보와 상업적 손익을 따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시청자들은 "그럼에도 시청자의 볼 권리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지 않은가"라며 아쉬움의 시선을 거두지 못했다.

● "다양성을 담아내는 중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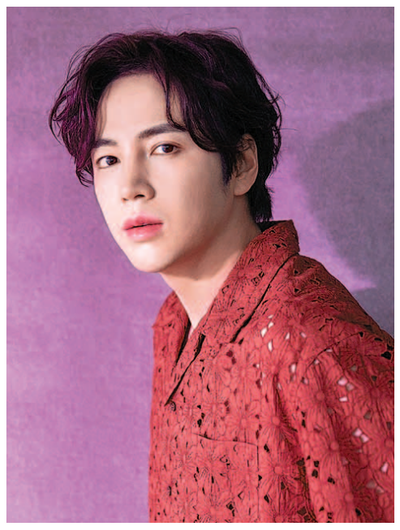
개막일이었던 7월23일부터 잇따른 MBC의 부적절한 자막과 영상 사용이 쏟아지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각 방송사의 중계방송은 또 다른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대표 여자 선수들을 가리켜 "태극낭자" "얼음공주" 등 성 차별적 단어가 남발됐다. 또 대한민국의 상대팀에 대한 조롱 섞인 멘트도 아쉬움을 남겼다. 7월24일 양궁 혼성단체 결승전에서 네덜란드팀에 대해 "10점을 쏴도 못 이긴다"는 중계진의 발언이 시청자 지적을 받기도 했다. 시청자 시선에서 좀 더 쉽고 전문적인 해설을 내놓는 대신 전 국가대표 선수로서 후배들을 바라보는 듯한 일부 해설위원들의 반말과 과도한 감정이입도 입길에서 피할 수 없었다.

이 같은 지적과 비판 역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만큼 각 방송사 제작진의 좀 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선이 멈추지 않는다. 한 방송관계자는 "스포츠 경기 중계방송이 언제부터인가 다소 예능화한 측면이 있다. 또 다양성을 중시하는 최근 시청자 시선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장근석 다시 일본으로…가수로 '한류 재점화'



배우 겸 가수 장근석이 4일 발표하는 새 싱글 '우연'을 시작으로 일본 활동에 박차를 가한다. 사진제공 | AG코퍼레이션

4일 생일 맞아 싱글앨범 '우연' 내놔
28일엔 온라인 라이브 팬미팅 예정

배우 겸 가수 장근석이 일본 한류 재점화에 나섰다. 지난해 6월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뒤 올해 3월과 5월 각각 두 차례 일본에서 신곡을 내놨던 그가 새로운 현지 활동을 펼친다.

장근석은 자신의 생일인 4일 새 싱글 '우연(雨戀)'을 내놓는다. 그는 1987년 9월 26일생이지만, 음력으로는 이달 4일이 34번째 생일이 된다. 장근석이 음력 생일을 따르는 데다 여름을 좋아하는 취향 등 반영돼 그와 팬들은 지금까지 음력을 기준으로 생일을 기념해왔다.

장근석은 이번 '우연'의 노랫말을 직접 쓰고 멜로디도 지었다.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 시티팝을 기반으로 복고풍 사운드에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노래로 알려졌다. 장근석은 또 실물 CD도 함께 선보이면서 자신의 사인과 직접 디자인한 에코백 등 굿즈도 한정판으로 팬들에게 선사한다. 이에 앞서 7월 말 유튜브 등을 통해 관련 티저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이번 싱글과 관련한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현지 팬들을 직접 만난다. 28일 온라인을 통해 라이브 팬미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내외 팬들에게 거리낌 없는 친근함을 과시해온 만큼 이번 팬미팅에도 기대가 쏠린다.

뒤이어 장근석은 9월15일 또 다른 싱글 '날마다'(Day by Day)를 발표한다. 역시 관련 온라인 팬미팅 등 이벤트를 준비 중이다.

장근석은 올해 3월 싱글 '스타'(Star)로 일본 라인 뮤직 실시간 차트 1위에 올랐다. 뒤이어 내놓은 '이모션'(Emotion)으로도 정상에 오르며 군 복무로 인한 공백기의 아쉬움을 달래며 현지 팬들의 환호를 받았다.

윤여수 기자

연예뉴스 HOT 3

엑소 전 멤버 크리스, 강간죄로 중국 공안에 체포



크리스

그룹 엑소의 전 멤버 크리스(중국명 우이판)가 강간죄로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1일(한국시간) 중국 베이징시 공안국 차오양 분국은 공식 SNS를 통해 "우이판이 여러 차례 나이 어린 여성을 유인해 성관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했다"며 "현재 캐나다 국적인 우이판을 강간죄로 형사구류하고 사건 수사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사구류는 우리나라의 체포에 해당한다. 앞서 크리스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크리스가 성관계를 위해 많은 여성을 유혹했고, 이 가운데는 미성년자도 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중국계 캐나다인인 크리스는 2014년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진행해 중국에서 배우와 가수로 활동해왔다.

BTS 지민 팬들 '기부 릴레이' 동참 귀감



지민

그룹 방탄소년단 지민의 팬들이 선한 영향력에 동참하고 있다. 1일 '지민 데이타'·'지민 유나이티드' 등 지민의 해외 팬클럽들이 7월28일 발생한 터키 대형 화재로 집을 잃은 이재민과 동물들을 위한 기부 릴레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각 팬클럽은 동물권연맹 'HAYTAP' 등에 지민의 이름으로 기부하기로 결정하고, SNS로 '#PrayForTurkey'(터키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등의 해시태그 릴레이를 펼쳤다. 앞서 7월31일에는 지민의 팬들이 팬아트 액자 등을 판매한 수익금 500만원을 한국소아암재단 등에 기부했다.

블랙핑크 '뚜두뚜두' 안무 유튜브 4억뷰 돌파



블랙핑크

걸그룹 블랙핑크의 '뚜두뚜두' 안무 영상이 유튜브에서 4억뷰를 돌파했다. 1일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뚜두뚜두' 안무 영상은 이날 오전 2시16분경 4억뷰를 넘겼다. '뚜두뚜두'는 2018년 첫 미니앨범 '스퀘어 업'의 타이틀곡으로, 그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K팝 뮤직비디오' 1위에 오르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본편 뮤직비디오는 최근 16억뷰를 돌파했다. 블랙핑크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6350만명으로, 팝스타 저스틴 비버(6450만)에 이어 세계 2위이다. 이들은 4일 공연 실황을 담은 영화 '블랙핑크:더 무비' 개봉을 앞두고 있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